

# 치료실 환경에서 장애아동 부모의 내적 경험과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이 선 아(이선아언어클리닉) · 한 유 진(명지대 교수)

본 연구는 치료실 환경에서 아동이 치료를 받는 동안 대기 중에 나타내는 부모의 행동과 다양한 감정을 찾아내고 그것이 가지는 내적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는 경기 지역에 위치한 한 개소의 언어심리연구소에서 장애아동의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관찰과 면담지 작성, 그리고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관찰과 면담 내용을 녹음 및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축어록은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여 개별 자료에서 장애 부모의 행동과 생생한 경험들을 표현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얻어진 내용 중 공통된 주제는 범주화 작업을 거쳐 11개의 주제로 도출하였으며, 두 명의 연구자가 번갈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서로의 편중된 견해나 해석 방식으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증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자 외 동료 연구자에 의해 타당도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의미 있는 11개의 주제는, 크게 관찰을 통한 행동적 측면과 심층면접을 통한 내적 경험 측면으로 나누어 졌는데, 행동적 측면에서는 나만을 위한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아동의 치료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라는 세 가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경험 측면에서 불안의 시간, 휴식의 시간, 희망의 시간이라는 세 가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치료 기간, 동행인과 대기인 유무, 아동 수행 능력의 진전 여부, 치료 과정의 신뢰 여부, 대기실 환경에 따른 조건이 각각의 행동과 내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기 중 부모의 행동과 활동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잡지책을 보는 단순한 행동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이면의 내적 경험에는 휴식과 안정된 공간의 확보라는 긍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가 대기 중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 이면에는 치료사에 대한 신뢰와 아동의 수행 능력과 진전 상태라는 두 가지 중재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동행인의 유무와 대기인 유무라는 맥락들이 서로 인과적 관계를 이루어 행동적 측면에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의 사고와 편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료자가 치료실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과 감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부모의 안정감 있는 내적 경험과 행동을 위하여 치료자와 부모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